

중세 사변 문법의 윤곽

이 환목
(전남대학교)

Lec, Hwan-Mook(1995). **A Glimpse into Medieval Speculative Grammar**. *Linguistics vol. 3*. Medieval speculative grammar is a grammatical theory representend chiefly by Peter Helias(c. 1150), Siger de Courtrai(c. 1300), Thomas of Erfurt(c. 1350). While Latin grammarians described grammatical phenomena of Latin in terms of Greco-Latin lexical categories such as noun, verb, etc. medieval speculative grammarians attempted to formulate a general theory of grammar using these traditional categories. They believed that grammar had its basis outside language itself and claimed that there can be one universal grammar dependent on the structure of reality and that the rules of grammar were quite independent of the language in which they were expressed. In constructing their own grammatical theory, they follwed the grammatical system of Donatus and Priesian but restated the parts of speech in semantic terms, using a terminology which they derived from the philosophical and logical theories of their contemporaries. Thus they defined parts of speech neither by their meaning nor by function but by modes of signifying. They thought the same thing can be signified either as an entity or as an action, which answers why there can be both a noun and a verb meaning 'run'.

Medieval speculative grammarians did not add a great deal to grammatical theory although their work reflects a remarkable degree of sophistication and as such is a worthy representative of the golden age of medieval scholasticism. A grammatical theory must be considered not only in terms of its own intrinsic value but also as an expression of the intellectual climate which produced it. In this sense medieval speculative grammarians are admirable representative of certain aspects of medieval achievement.

0. 서론

서 양의 역사에서 중세(the Middle Age)는 보통 로마제국(27 B.C. - 395 A.D.)의 붕괴로부터 문예부흥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을 말한다. 중세의 교양과목은 모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교과목이었고, 문법은 중세대학의 교양과목의 하나였다.¹ 문법은 당시 학문을 하는 데 필요한 언어인 라틴어를 읽고 쓰는 데 필수적이어서 모든 교양과목의 기본이 되었다. 문법은 다른 학문을 하기 위한 도구과목이면서 동시에 고전작품과 라틴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세의 문법은 보통 학습문법과 사변문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학습문법은 라틴문법을 아무런 비판이나 수정을 가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8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문법을 말한다. 반면 사변문법은 Aristotle과 스킴라철학의 영향을 받아 문법현상에 철학적인 설명을 시도한 12세기부터 문예부흥기까지의 문법을 가리킨다.

사변문법은 Priscian과 Donatus가 회랍문법을 토대로 하여 라틴어의 문법현상을 기술하는 데서 그친 라틴문법에 이론적인 근거를 부여하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 글은 Bursill-Hall(1971)에 근거하여 Thomas of Erfurt (1350, *Grammatica Speculativa*)를 중심으로 중세사변문법의 윤곽을 살펴 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학습문법

Priscian과 Donatus는 라틴문법의 대표적인 학자일 뿐 아니라, 고대와 중세의 문법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문법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세사람들이 라틴문법의 고전인 Donatus (c.350)의 *Ars grammatica*와 Priscian(c.500)의 *Institutiones grammaticae*를 통하여 물려 받은 전통은 라틴어의 표면구조를 철저하게 기술하는 기술문법이었다. 학습문법은 이들 두 라틴문법을 베껴쓰고 주석을 부치는 것이 주된 일이었고, 관찰할 수 있는 언어현상을 기술하는 데에 주로 관심이 있었다. 이처럼 학습문법이 라틴문법을 그대로 받아드린 결과, 이론적인 면이나 방법론적인 면에서 문법의 발달을 역사적으로 살펴 보고자 할 경우, 중세의 학습문법에는 특별히 주목할만한 문법학자는 찾아 보기 힘들다. 다만 1000년 경의 Aelfric(Abbot of Eynsham)이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라틴어에 대한 문법을 썼다는 점에서, 그리고 1200년 경의 Alexander of Villdieu가 라틴어 시 윤율로 쓴 *Doctrinale*가 중세의 가장 인기가 있었던 학습문법이라는 점에서 다소 주목을 받을 만 하다.

Aelfric의 라틴문법은 어린 학동들에게 가르칠 목적으로 라틴어의 실용문법을 앵글로색슨어로 쓴 것이다. 그 당시 영국은 물론 유

럽의 모든 문명국가들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과 학문을 하는 데 라틴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Aelfric은 당시의 다른 문법가들과 마찬가지로 Priscian과 Donatus의 문법에 근거하여 8품사와 다른 문법범주를 그대로 받아 드리고, 라틴어 예문에 모두 앵글로색슨어로 번역을 붙였다. 그는 서문에서 그의 문법서가 영어문법(엄격이 말하면, 앵글로색슨어 문법)을 위한 입문서 역할을 하리라고 말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 왜냐하면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라틴어 문법을 쓰고 라틴어를 연구할 때, 라틴어를 자신들의 모국어와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²

1200년 경에 쓰여진 Alexander의 *Doctrinale*는 라틴어가 모국어 가 아닌 학생들을 위하여 가르치기 쉽고 외우기 쉽도록 육보격 운들의 형식으로 쓰여졌다. 중세의 다른 라틴문법과 마찬가지로 Alexander의 문법도 주로 Priscian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Priscian이 라틴어 통사론을 방대하게 다룬 반면, Alexander는 2600여 행으로 된 그의 문법 중에서 다만 170여행만을 라틴어 문장구조, 격 형태, 시제, 관계대명사 등을 다루었다. Priscian이 고전 라틴어를 다룬 반면, Alexander는 그 당시 식자층이 사용한 중세 라틴어를 예문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Doctrinale*는 문법규칙의 타당성을 설명하거나 문법적인 이론이 없는 순전히 학습 문법이었다. 이러한 불만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시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13세기 초 사변문법이 등장할 때까지 *Doctrinale*는 후기 중세의 가장 널리 사용된 학습문법이었다.

2. 사변문법

중세의 문법학자들이 자료중심의 기술문법으로부터 이론중심의 사변문법으로 그 관심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Boethius가 번역한 Aristotle의 논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Boethius는 Priscian과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470년경에 태어나 로마와 아테네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회랍고전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데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Aristotle의 *On Interpretation*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초급자와 상급자를 위하여 그에 대한 두가지 주석을 붙였는데 그것이 오늘날 *De Interpretatione*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번역과 주석 외에도 그는 논리, 신학, 철학, 천문학, 수학, 음악, 그리고 기하학에 대해서도 많은 저술을 하였다.³

Boethius는 학예 3과인 문법, 논리학, 그리고 수사학을 지식을 표현하는 과목으로 보았으며, Aristotle의 영향을 받아 보편성(universals)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는 문법과 논리학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Boethius가 중세 서구학계에 보편성의 문제를 소개하여 여러 세기 동안 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

었지만 만족할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보편성의 문제는 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 ‘착한’, ‘나쁜’과 같은 보편사(universal terms)인 보통명사나 형용사가 갖는 의미란 어떤 것인가와 같은 문제였다.⁴

중세의 문법학자들이 문법에 대한 관심의 방향을 기술에서 설명으로 바꾼 것은 중세에 들어와서야 고대 철학자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희랍의 문헌이 다시 발견되고 라틴어로 번역되어 당시의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법과 관련된 철학적인 재발견으로 인하여 중세문법은 어느 시대보다도 더 논리학과 형이상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중세문법학자들은 문법규칙을 논리규칙으로부터 끌어내고, 이러한 문법규칙을 실재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이론으로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중세의 문법을 언어논리(Sprachlogik)라고 부르기도 한 것은 중세문법이 논리학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자료중심의 문법이 아니라 이론중심의 문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Bursill-Hall 1974, p.78). 그리하여 문법은 이제 라틴어를 읽기 위한 도구과목이면서 동시에 자연을 이해하고 인간정신을 이해하기 위한 관건인 사변철학의 한 분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중세의 문법학자들이 언어의 논리적 현상에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Aristotle의 논리학이 문장을 주부와 술부로 나누고, 여러가지 종류의 문장에 나타나는 술부의 역할을 밝히는 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세의 논리학자들은 또한 자연언어를 분석하고 자연언어의 통사구조와 의미구조 사이에는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있고, 논리와 문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문법학자들이 모든 어휘범주에 관심을 갖는 반면, 논리학자들은 명사와 동사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문법학과 논리학자들간의 두드러진 차이이다. 이와 같이 문법이 철학적인 복잡한 문제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중세의 문법은 단순히 라틴어를 배우는 데에 필요한 학습문법에 머무르지 않고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변문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변문법은 언어 일반과 언어의 구조에 대한 철학적인 이론을 정립하려고 시도한 문법이론으로서 1150년경의 Peter Helias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당시의 연구를 종합한 것이 그의 주요한 업적의 전부이지만, 후세 학자들은 사변문법이 그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Peter Helias는 당시 철학의 중심지였던 파리대학의 교수였다. Priscian이 서술의 단계에서 그친 문법규칙에 대하여 철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는 당시의 다른 대부분의 문법학자들과는 달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의 수만큼이나 문법의 수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문법에 대한 Peter Helias의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당시의 사변 문법학자들은 문법은 인간이성과 실제세계의 구조와 모두 관련이 있는 단 하나의 보편문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보편적인 문법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철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사법문법학자들의 문법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당시의 라틴문법학자들과는 크게 상반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라틴문법학자들은 주로 학습문법에 관심을 가지고 고전작가들의 문헌에 근거하여 낱말의 형성이나 어형변화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낱말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기술할 뿐, 이들 문법규칙을 설명하거나 문법규칙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변문법학자들은 문법규칙을 기술할 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Priscian의 문법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사변문법학자들은 문법규칙은 언어 외적인 것, 즉 사고의 법칙이나 사물의 성질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믿고, 문법은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Helias는 낱말과 실제세계에 존재하는 사물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배관계를 지칭의존성(referential dependenc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⁵

문장을 이루고 있는 낱말중에서 명사는 실제세계의 사물을 가리키지만, 동사, 형용사, 전치사와 같은 낱말들은 실제세계에 가리키는 것들이 없어도 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전체적으로는 실제세계의 어떤 것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Helias는 실제세계의 사물을 직접적으로 가리키지 않는 동사나 형용사들과 같은 낱말들도 실제세계의 사물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았다. Helias는 이러한 연결을 지배(regimen)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의 주장을 따르면, 동사가 주어와 목적어를 지배하는 것은, 실제세계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동사는 주어와 목적어에 의존하는 것이고, 전치사가 목적어를 지배한다는 것도 전치사가 그의 목적어로 하여금 어떤 격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는 그의 목적어에 의존하여 실제세계의 어떤 것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Covington 1986, pp. 24-25)

중세의 문법학자들이 문법을 이처럼 이론적인 학문으로 그 방향을 바꾸게 한 데에는 Aristotle의 *Posterior analytics*와 Alfarabi의 *Liber de scientiis*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후세학자들은 짐작하고 있다. 사변문법이라는 이름도 Aristotle이 지식을 실용적(*praktike-practical*)인 것과 이론적인(*theoretike-theoretical*) 것으로 분류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사변문법의 '사변적(*speculative*)'이라는 용어는 원래 '이론적'이라는 의미를 가진 희

랍어 *theoretike*를 라틴어 *speculativa*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변문법을 이론문법(*grammatica speculativa* - theoretical grammar)이라고 부르기도 한다(Covington 1986, pp. 25-6). *speculative*에 대한 또 다른 어원설은 이 용어가 '언어는 실재세계에 내재하는 실체(reality)를 반영하는(라틴어로 *speculum*인) 거울과 같다'는 스토아철학과 스킴라철학에서 연유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들 철학은 언어를 실재세계의 실체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언어표현이 갖는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변문법학자들은 언어를 분석할 때 의미(signification)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사변문법학자들은 그들의 연구를 의미의 양상(De modis significandi)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사변문법학자들을 양식문법가(Modistae)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은 이런 때문이다(John Lyons 1968, pp. 14-5).

Aristotle은 과학적인 지식은 필연적이고 보편적(necessary and general)이어야 하고 과학적인 지식은 그것이 다루는 모든 현상에 적용되는 사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Aristotle의 영향을 받아 중세문법학자들은 언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분석하고자 하는 어느 한 개별언어는 물론 가능한 모든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밝혀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문법이 이처럼 언어 외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변문법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언어는 보편적인 문법구조를 가지고 있고, 문법규칙은 개별언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문법규칙이 개별언어에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한 것이라는 사변문법학자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한 언어의 문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다른 언어의 문법을 이해하는 것은 문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언어를 말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문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낱말이나 그들의 형태와 같은 문법의 부수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사변문법학자들의 문법에 대한 견해는 문법은 모든 언어에 타당한 단 하나의 문법체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법을 찾아내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철학자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 사변문법학자들의 이러한 문법관이 후세에 그대로 받아들려진 것은 아니지만 현대의 일반문법(General Grammar)도 사변문법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의미양식문법

사변문법은 1260년부터 1320년 사이에 가장 활발히 연구되었고, 문법범주를 의미(표현)양식(modes of signifying)을 사용하여 기술하였다. 이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사변문법을 양식문법(Modistic

Grammar)이라고도 부른다(G. Bursill-Hall 1966, p. 133). 양식문법은 문법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둔 이론문법이라는 점에서 사변문법의 일종이다. 그러나 양식문법은 의미양식에 근거하여 문법현상을 설명하고 문법범주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세의 이론문법을 총칭하는 사변문법과 구별할 수 있다.

양식문법은 고대문법의 두가지 전통인 Plato, Aristotle, 그리고 스토아학파의 논리-철학적 문법과 Thrax, Donatus, 그리고 Priscian의 문학작품의 이해에 중점을 둔 문법(literary grammar)을 통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양식문법가들은 스킴라철학의 영향을 받아 실체에 대한 형이상학이론으로 문법범주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문법전통과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양식문법가들은 문법은 그 근거가 언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에 있고 실체의 구조에 근거한 하나의 보편문법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이처럼 문법규칙은 그들이 나타나는 언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은 결과, 그들은 Donatus와 Priscian의 문법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품사와 그들의 어형변화를 그 당시의 논리와 철학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양식문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중세철학이 양식문법의 이론적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미양식(*modes of signifying*)이라는 용어는 사변문법의 정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의미양식이 나타내는 것은 낱말이 가진 의미의 일부도 아니고, 낱말이 가진 음성자질도 아니다. 의미양식은 낱말이 그 의미를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가늠해 보기 위한 척도(parameters)이다. 예를 들면, 동사 *currere* '달리다'와 명사 *cursus* '달음질'은 '달림'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이들 두 낱말은 그 의미를 서로 다른 양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동사와 명사는 의미를 나타내는 양식이 서로 다르며, 이 때문에 이들은 서로 다른 품사에 속한다고 사변문법가들은 주장하였다. 낱말의 소리는 임의적일 뿐만 아니라, 의미를 연구하려면 언어외적인 실재세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양식문법은 의미를 나타내는 양식만이 이론문법의 고유한 연구대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양식문법은 품사, 격, 시제 등과 같은 문법범주의 기능을 실재세계의 사물과 낱말을 연결하는 기호-의미의 관계로 설명하기 위하여 의미양식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Priscian이 명사는 모두 그에 고유한 속성(*qualitas*)을 가진 하나의 실체(*substantia*)를 의미한다고 본 반면, 12세기의 William of Conches를 비롯한 사변문법학자들은 Socrates와 같은 명사가 하나의 실체와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실체와 속성이 명사의 의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들 실체와 속성이 의미의 양식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하

여 품사의 정의 내지 분류기준은 낱말이 갖는 의미라기 보다는 의미표현양식이라는 것이 양식문법학자들의 기본 입장이다. 똑 같은 사물을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내면 그것은 동사이고, 하나의 개체로 나타내면 그것은 명사인 것이다 (Covington 1986, p.28).

양식문법학자들은 의미양식(*modi significandi*)을 모든 언어에 똑 같은 필수적인 양식(*essential modes*)과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수적인 양식(*accidental modes*)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예를 들면, 동사의 서술능력은 그것이 없으면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인 양식이고, 동사의 시제는 시간부사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양식이다. 이들 두가지의 양식에 따라 의미양식론자들은 *Donatus*와 *Priscian*의 품사가 가진 모든 속성을 양식론의 용어로 바꾼 후, 이들 품사를 의미양식으로 분류하였다.

대표적인 사변문법학자로는 Siger de Courtrai(c.1300)와 Thomas of Erfurt(c.1350)를 들 수 있다. Siger는 스콜라철학에 근거해서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낱말이 가진 의미기능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따라서 문법에 대한 그의 접근방법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의 의미론을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의미론은 양식의미론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스콜라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사물은 모두 다양한 속성 내지 존재양식(*modi essendi*)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정신은 이들을 능동적인 이해의 양식(*modi intelligendi passivi*)을 통하여 이해하고, 이러한 능동적인 이해양식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이해의 양식(*modi intelligendi passivi*)이 있는데, 인간정신이 이해하는 사물의 속성은 이러한 수동적인 이해의 양식이라는 것이다. 인간정신은 음성(*vocal noises*)에다 능동적 의미양식(*active modes of signification*)을 부여하고, 음성은 능동적 의미양식에 의해 낱말이나 문장의 일부(*parts of speech--partes orationis*)가 되어 사물의 속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낱말이 의미하는 사물의 속성은 의미의 수동적 양식(*passive modes of signification--modi significandi passivi*)에 의해서 나타내진다.

Siger의 이러한 언어이론에 의하면 언어구조는 사물의 구조 그리고 인간의 정신작용과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으며, 언어가 뒤죽 박죽 아무렇게나 모여 만들어진 소리가 아닌 것도 이러한 상호관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표현의 범주 즉 낱말은 의미의 능동적 양식, 다시 말하면 낱말이 사물의 성질이나 속성을 의미하는 양식에 의해서만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 사변문법학자들이 갖는 품사정의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리하여) 명사는 실체, 변치않는 상태, 또는 개체를 나타내는 본질적인 양식에 따라 정의된다. 동

사는 변화, 생성, 이동, 또는 존재의 양식에 의하여 나타내지는 품사이다. 대명사는 아무런 속성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실체를 나타낸다. 이들 품사는 다시 그들이 가진 성, 수, 격, 시제, 등과 같은 이차문법범주에 따라 세분되며, 이들 이차범주는 본질적인 의미양식과 구별하여 부차적인 의미양식이라고 한다.

Siger의 문법에 관한 저술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온전한 것이 못되고 일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Siger의 품사정의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다만 명사, 동사, 그리고 대명사에 대한 것 뿐이다.

나머지 품사에 대한 사변문법적 정의를 Siger보다 50년 쯤 후에 Thomas of Erfurt(c.1350)의 사변문법(*Grammatica Speculativa*)으로 보충하는 것도 이런 때문이다. Thomas의 *Grammatica Speculativa*는 지금까지 온전히 남아 있는 사변문법서 중에서 의미양식에 근거하여 품사론과 통사론이 가장 완전하게 정리된 양식문법서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는 Thomas의 *Grammatica Speculativa*를 Bursill-Hall(1971)에 근거하여 양식문법의 품사론과 통사론의 윤곽을 간단히 살펴 보겠다.

4. 품사론

어휘범주에 근거하여 문법을 논의하는 전통은 이미 회랍문법에서 시작되어 라틴문법을 거쳐 중세의 사변문법에 이르러서는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3세기의 사변문법은 Donatus와 Priscian의 어휘범주 체계를 그대로 받아드리면서도 이들 범주에 대한 이해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하였다. 사변문법학자들은 Aristotle의 논리와 철학의 영향을 받아 문법규칙을 논리체계로부터 끌어내고, 이들 문법규칙을 실재세계와 관련하여 철학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사변문법이 어휘범주를 논의하고 정의하는 데에 쓰인 개념과 용어가 회랍-라틴문법의 것들과 전혀 다른 것도 이런 데에 그 원인이 있다.

13세기 이전이나 13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문법은 보통 글자와 음절을 다루는 철자법(orthographia), 낱말과 그 의미를 다루는 어원론(etymologia), 문장과 그 구조를 다루는 통사론(diasynthetic), 그리고 발음을 다루는 운율론(prosodia)의 네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Thomas Erfurt는 어휘범주를 논의하면서, 문법을 품사론(etymologia)과 통사론(diasynthetic)으로 나누었다. 양식문법에서 어원론은 명사나 대명사의 격변화, 동사의 어형변화, 그리고 낱말형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었다. 낱말들의 어원을 밝히는 것이 어원론이 하는 일의 전부라고 보았던 당시의 문법전통과는 달리 양식문법의 어원론은 어휘범주를 정의하고 어형변화

(accidents)를 주로 다루었다.

양식문법은 모든 어휘범주는 실재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어떤 성질이나 양상을 나타내므로 어휘범주는 실재세계의 사물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실재세계의 사물들이 어떤 일반적인 속성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각개 사물들은 그들 고유의 특성을 가짐으로써 이들 사물간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물들을 나타내는 어휘범주들도 문법이라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간에는 공통적인 속성과 이들 각 어휘범주를 구별하게 하는 개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식문법학자들은 문법현상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Thomas Erfurt는 Siger의 분류를 따라 낱말을 어형변화를 하는 것(declinable)과 어형변화를 하지 않는 것(indeclinable)으로 나누었다. 명사, 대명사, 동사, 그리고 분사가 전자의 범주에 속하는 낱말이고, 부사,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감탄사가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낱말들이다. 양식문법은 어형변화를 하는 어휘범주가 어형변화를 하지 않는 낱말보다 의미양식(modes of signifying)의 수가 더 많은 것은 그들이 어형변화를 하지 않는 낱말보다 더 많은 속성 내지 존재양식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1 어형변화범주

양식문법은 어형변화 범주의 두드러진 속성으로서 영속성(stability)과 생성-변화성(becoming)의 두가지 일반적인 양상을 들고 있다. 명사(nomen)와 대명사(pronomen)는 영속성(stability, permanence)을 가진 어휘범주이고, 동사(verbum)와 분사(participium)는 생성-변화성(becoming)을 가진 어휘범주이다.

명사와 대명사는 실체(substance), 즉 실재 세계에 존재하고 사물의 영속성을 나타내는 구체성(concreteness)을 나타낸다. 명사와 대명사는 이러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 내지 구체성이 명사와 대명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feature)이다. 명사와 대명사를 구별해 주는 개별적인 것을 사변문법학자들은 변별적 속성(qualitative determination)이라고 하고, 명사의 경우 이러한 속성은 사물을 정확히 구별하여 나타내는 능력이다. 반면 대명사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영속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 사변문법학자들은 명사가 가진 이러한 영속적이고 일정한 속성을 명사의 의미기능이라 하고 이러한 기능이 존재양식(the mode of being: modus entis)에 의해 나타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대명사도 명사와 같이 영속적이고 정적인 양식으로써 나타내지만 불확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사와 다른 점이다.

동사와 분사는 생성-변화의 속성(features of becoming)을 나타낸다. 동사와 분사는 다른 어휘범주를 지배하지만 다른 범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영속적인 것은 모두 실체에서 나오지만, 변하는 것은 모두 행위나 운동으로부터 나온다. 행위나 운동이 주어와 관계될 때, 그것은 생성-변화의 속성으로 나타난다. 동사는 행위를 수행하는 주어로부터 그 행위를 분리시키지만, 분사는 주어에 연결된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이 동사와 분사의 다른 점이다. 다시 말하면, 분사는 변화-생성의 일반적인 양식을 동사와 공유하지만, 실체로부터 분리하는 개별적인 양식으로 나타내는 동사와는 달리, 분사는 실체로부터 분리하지 않는 개별적인 양식으로 나타난다.

4.2 무변화범주

어형변화를 하지 않는 부사,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감탄사는 무변화범주이다. 부사는 주로 행위나 동작을 수식하여 그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동사에 가장 가깝다. 접속사는 어떤 것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변문법학자들은 접속사를 특별한 연결부가 없어도 두개의 그룹을 연결하는 접속사(conjunctio per vim)와 어떤 연결부가 있어야 두개의 그룹을 연결하는 접속사(conjunctio per ordinem)로 나누었다. 전치사는 실체적인 요소(substantive element)가 갖는 격과 같은 속성과 이러한 요소들이 연결된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act)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쓰인다. 전치사가 실체를 행위에 연결시킨다고 보는 견해는 안정성이나 변화-생성성의 구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상호구조를 도입한 것이다. 감탄사는 지성에 의해 감지되는 여러가지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에 쓰인다. 이러한 심적인 상태는 동적인 자질에 의하여 생기므로, 감탄사는 동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Thomas는 부사를 동사에 덧붙여짐으로써 그 의미를 갖게 되는 품사, 전치사는 격어미를 갖는 낱말 앞에 놓임으로써 의미를 갖게 되는 품사, 그리고 접속사는 낱말들을 연결함으로써 의미를 갖게 되는 품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 품사에 대한 Thomas의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변문법학자들이 명사, 동사, 대명사와 같이 어형변화를 하는 품사의 정의는 의미와 관련된 철학적인 정의를 한 반면, 부사, 전치사, 접속사와 같은 어형변화를 하지 않는 품사는 형태나 통사기능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변문법학자들 중에서는 이들 어형변화를 하지 않는 품사들을 언어철학의 연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러한 품사들은 낱말로써 언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보조사(auxiliaries)일 뿐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R.H. Robins 1951, 85). 이러한 주장

은 접속사(syndesmoi)가 문법적인 요소(grammatical words)일 뿐 엄밀하게 말하자면 낱말이 아니라고 주장한 Aristotle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Aristotle은 앞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철학 내지 논리적 관점에서 언어에 접근하였다. 문법현상을 형태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떤 낱말은 실재 세계의 어떤 것을 가리킨다기 보다는 문장에 들어가 그 문장에 어떤 통사적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그 문장의 의미형성에 무엇인가를 기여하는 데서 의미를 갖는 그런 낱말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낱말들을 언어 외적인 것으로 분석하는 것은 언어구조가 갖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해 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사변문법가들의 언어에 대한 접근은 다소 소박한 부분이 많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품사와 이차적인 문법범주를 설정할 때 그들이 상정한 사물의 형이상학적 특성이나 그들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 그 근거를 두면서도 Priscian과 Donatus의 품사분류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사변문법의 논리-철학적 문법과 Priscian과 Donatus의 전통문법과의 차이는 단일어(simple words)와 복합어(compound words)에 대한 정의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Aristotle이 더 이상 유의미한 낱말로 나눌 수 없는 낱말을 단일어라 정의한 것이나, 하나의 강세를 가진 낱말을 단일어라고 정의한 것을 보면 전통문법은 낱말의 정의를 낱말이 가진 형태나 음성구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변문법가들은 낱말을 그들이 가리키는 사물의 한 속성을 나타내면 단일어라 하고 복합적인 속성을 가리키면 복합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사변문법은 전통적인 분류체계를 따르면서도 이러한 분류를 그들이 설정한 논리적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사변문법은 전통문법과는 달리 문학(literature)을 버리고 논리를 택했으며 문법을 문학을 위한 도구과목이 아니라 철학의 한 분야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생각한 논리와 문법의 관계는 논리를 통하여 우리는 진위(truth)와 앎에 도달할 수 있으며, 문법은 이러한 것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변문법가들에게 언어란 인간지성이 갖는 사고를 말로 나타낸 것(verbal expression)으로만 보았다. 언어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언어가 가진 다양한 기능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협의의 정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통사론

사변문법학자들 중에서 라틴어의 통사적 현상을 의미표현양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Martin of Dacia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사변문법의 대표적인 통사론은 Thomas of Erfurt(c. 1300)의 *Grammatica speculativa*(=*Novi modi significandi*)이다. Thomas는 통사론을 낱

말들을 통사적으로 연결시키고(*Constructio*), 이렇게 연결된 구조에 적형성 조건을 부여한 후(*Congruitas*),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는 것을 검증하는(*Perfectio*) 세가지 단계를 가진 작용(process)으로 보았다.

*Constructio*는 낱말과 낱말의 통사적 연결(linkages)을 형성한다. 이 단계에서 형성된 Construction은 하나의 낱말을 또하나의 낱말과 연결할 뿐, 한 낱말을 구와 연결하지는 않는 것으로 Thomas는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문장 *Socrates albus currit bene*(White Socrates runs well)에서 *Socrates*와 *currit*가 하나의 construction이고, *Socrates*와 *albus*가, 그리고 *currit*와 *bene*가 각각 또다른 Construction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구조분석은 *Socrates albus*와 *currit bene*를 결합하여 하나의 construction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현대문법의 분석과 차이가 있다.

Thomas는 각개의 construction을 transitive와 intransitive로 나누었다. transitive는 'hit Socrates'나 'similar to Socrates'에서처럼 두 낱말이 두개의 서로 다른 사물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hit Socrates'에서는 Socrates와 Socrates를 때리는 사람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있다. 'similar to Socrates'에서도 Socrates와 그를 닮은 또 다른 사람이 있다. intransitive는 'Socrates runs'나 'white Socrates'처럼 두 낱말이 가리키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통사론의 두번째 단계인 *Congruitas*는 각개의 Construction에 적용하는 적형성조건(well-formedness conditions)이다. 두 낱말간의 성의 일치는 적형성조건의 하나이다. 중세사변문법에서는 명사의 성이 형용사의 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가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의 문법성을 나타내는 어미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통사론의 세번째 단계인 *perfectio*는 하나의 문장이 전체적으로 완전함을 입증하는 단계이다. Thomas는 이러한 입증의 기준으로 주어와 술어가 있어야 하고, 낱말간에는 일치가 있어야 하며, 완결되지 않는 의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세가지를 들었다.⁶⁷

6. 결론

언어구조가 실재세계 구조와 우리의 인식구조를 반영한다는 중세사변문법학자들의 주장은 실재세계는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 13세기 실재론자들의 주장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14세기에 들어서면서 낱말은 다만 우리의 생각을 임의적으로 나타낼 뿐, 언어는 존재론적 근거나 인식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유명론자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양식문법학자들이 문법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내세운 의미양식(modes of signifying)은

실재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낱말을 분류하고 정의하거나 문장의 문법성을 설명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스콜라철학을 배경으로 한 사변문법은 이러한 철학을 우습게 보고 반박한 문예부흥기의 사조에 밀리어 오늘날에는 문법사의 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가 없는 문법이론이 되고 말았고, 중세문법에 대한 오늘날의 연구는 극히 단편적인 것일 뿐 전체적인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구의 문법연구는 철학적인 사고로부터 시작하여 사변문법에 계승 강화되어, 모든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주체계를 논의 할 때는 이러한 철학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변문법이 후세의 문법연구에 미친 영향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 용 주

1. 중세의 교양과목(Liberal Arts)이란 학에 3과(Trivium)와 학에 4과(Quadrivium)의 7과목을 말한다. 학에 3과는 문법, 논리학, 그리고 수사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에 4과는 음악, 산수, 기하, 그리고 천문학으로 되어 있다.
2. 앵글로색슨어는 현대영어보다 구조면에서 라틴어와 비슷한 점이 많았고 또 그 때문에 Priscian의 문법범주를 앵글로색슨어에 적용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Aelfric의 문법은 앵글로색슨 어린이들에게 라틴어 문법의 훌륭한 입문서가 되었고, 그런 점에서 Aelfric를 영국에서는 라틴어 문법의 비조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라틴어와 앵글로색슨어 사이에는 격, 수동태, 등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라틴어에는 여섯개의 격이 형태적으로 구별되는 반면, 영어에는 네개의 격뿐이다. 라틴어는 수동형을 동사활용(passive conjugation)으로 나타내는 반면, 앵글로색슨어는 현대 영어와 마찬가지로 be 동사와 수동분사로 나타내고 있다. 더 자세한 것은 R. H. Robins 1951, pp. 69-74를 참조할 것.
3. Boethius는 교육이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서구교육의 비조로 알려졌다. 그의 저술이 이들 교양과목의 기초가 되었으며, 교양과목을 두 분야로 나누어 학에 3과(Trivium)와 학에 4과(Quadrivium)라고 부르는 것도 그가 창안한 명칭이다.
4. 보편사(universal terms)가 전형적인 삼단논법의 변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보편성의 문제는 Aristotle의 논리학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5. 전통문법학자들에 의하면, 하나의 낱말이 다른 낱말을 지배한다는 것은 그 낱말이 다른 낱말로 하여금 특정한 어형변

화형(inflexional feature)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동사가 그의 주어와 목적어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각각 주격과 목적격의 어형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지배개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어형변화를 하지 않는 낱말들간의 지배관계는 설명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의미를 가지고 지배개념을 정의하려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시도는 한 낱말이 다른 낱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배하는 낱말인가 아니면 지배받는 낱말인가와 같은 또하나의 문제에 부딪쳤다.

6. Thomas가 제시한 위의 세가지 기준에다 Radulphus Brito는 제4의 기준으로 동사는 부정사가 아니라 정동사이어야 한다는 것을 추가하였다(Covington 1986, p. 33).

7. 'if Socrates runs'가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것은 if-절이 다른 절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 고 문 헌

- Bursill-Hall, G.(1966): 'Aspects of Modistic Grammar', in F. P. Dinneen, S. J.(ed.) *Report of the Seventeenth Annual Round Table Meeting on Linguistics and Language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 C.
- Bursill-Hall, G. L.(1971): *Speculative grammars of the Middle Ages: the doctrine of 'partes orationis' of the Modistae*, The Hague: Mouton.
- Bursill-Hall, G.(1974): 'Toward a History of Linguistics in the Middle Ages, 1100 -1450', in Dell Hymes(ed.) *Studies in the History of Linguistics: Traditions and Paradigms*,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 Bynon, T. & F. R. Palmer(eds.)(1986): *Studies in the History of Western Linguistics: In Honour Of R. H. Robi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Covington, M. A.(1986): 'Grammatical theory in Middle Ages', in Bynon T. & F. R. Palmer(eds.) (1986), pp. 23-42.
- Dinneen, Francis P.(1967): *An Introduction To General Linguistics*,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New York.
- Godfrey, R. G.(1960): 'The Language Theory of Thomas of Erfurt', *Studies in Philology* 57, pp. 22-29.
- Godfrey, R. G.(1967): 'A Mediaeval Controversy Concerning the Nature of a General Grammar',

- General Linguistics* 2, pp. 79-104.
- Harris, R. and T. J. Taylor(1989): *Landmarks in Linguistic Thought*, Routledge, London.
- Hunt, R.W.(1941): 'Studies on Priscian in the 11th and 12th centuries', *Medival and Renaissance Studies* 1. pp. 194-231.
- Hunt, R. W.(1950): 'Studies on Priscian in the 11th and 12th centuries', *Medival and Renaissance Studies* 2. pp. 1-56.
- Lyons, J.(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Percival, W. K.(1987): 'On Priscian's Syntactic Theory: The Medieval Perspective', in H. Aarsleff (eds.)(1987), *Papers in the History of Linguistic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 Robins, R. H.(1951): *Ancient & Mediaeval Grammatical Theory In Europ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Modern Linguistic Doctrine*, G. Bell & Sons LTD, London.
- Salus, Peter H.(ed.)(1969): *On Language: Plato to von Humboldt*,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New York.
- Sebeok, T. A.(1975):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Vol. 13: Historio-graphy of Linguistics*, Mouton, The Hague.

광주직할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이환목